

제주도방언에 대한 학술조사의 성과와 반성

오 창 명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방언조사의 필요성
3. 방언 조사 방법
4. 조사 자료의 전사와 기록
5.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 말에 대한 연구는 공통부분만을 추출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다. 종전의 언어연구는 일종의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인간이 사용하는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방언도 언어학의 한 면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에서의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20세기초 일본인 학자들의 현지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일본인 학자들은 서구의 언어학 이론을 받아들여, 한국어를 현지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자료집 형태로 편찬하고, 표준어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는 오구라 신페이(小倉

* 제주대 강사. 단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進平)의 (1913, 1924, 1931, 1944),¹⁾ 고오노(河野六郎)의 (1942)²⁾가 있다. 우리 나라 학자에 의한 조사와 연구는 石宙明의 (1947, 1970, 1971),³⁾ 李崇寧의 (1957),⁴⁾ 박용후의 (1960, 1988),⁵⁾ 현평효의 (1961, 1985)⁶⁾를 비롯하여, 강운호의 (1960),⁷⁾ 강정희의 (1988),⁸⁾ 성낙수의 (1992),⁹⁾ 홍종림의 (1993),¹⁰⁾ 강영봉의 (1993, 1994)¹¹⁾ 등이 있다. 이들은 194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제주도방언에 대한 현지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초기 방언학자들의 공로는 새삼스러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1) 小倉進平(1913), “濟州島方言”.

——(1924), “朝鮮語の歷史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

——(1931), “濟州島方言”.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下), 岩波書店.

오쿠라 신베이의 (1913-1924)는 1911년에 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의 오류를 고치기 위해 1930년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1931)이고, 이의 종합이 (1944)에 들어 있다.

2) 河野六郎(1942), “朝鮮語方言學試攷 : ‘歛’語考”.

이는 1937년부터 1939년 동안 3년간의 한국의 방언에 대한 현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따라 어휘의 차이를 구명한 것이다.

3)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70), <제주도곤충상>, 보진재.

——(1971),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석주명(1947)은 원래 비전문인으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서귀포 토평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그 일대에서 조사한 방언어휘들을 채록하여,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를 대비시키고,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여타 방언과의 차이점도 아울러 고찰한 것이다. 그의 (1970)은 제주도에 서 조사한 곤충어휘를 정리한 것이고, (1971)은 식물명, 동물명, 농업어휘, 임업어휘, 목축어휘, 해산어휘 등을 정리, 수록한 것이다.

4) 이승녕(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2,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5) 박용후(1960, 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6) 현평효(1961, 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대학사.

——(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7) 강운호(1960), “제주도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계 어휘체계와 그 환경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1집, 이화여대.

8)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출판부.

9)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0)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11)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1994), <제주의 언어1>, 도서출판 제주문화.

2. 제주도방언 조사의 필요성

초기의 방언 조사와 수집은 표준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음운현상과 문법현상을 구명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결국 중세국어에 존재했던 ‘.’, ‘.’음의 존재를 제주도방언에서 확인함은 물론, 중세국어와 대응되는 형태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명사류 어휘에서 특이한 어휘가 상당수 존재하고, 상태동사류와 동작동사류, 조사와 어미류에서도 육지방언과는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고 확인되었다.

제주도방언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국어의 문헌에 표기되는 모음 ‘.’(/ɔ/)와 ‘.’’(/jɔ/)가 실현된다.

굽(重,疊), 누물(菜蔬), 물석(糶), 문이(長者) / 그럽다(瘳), 굽가르다(重-), 그다(斷)
등.

으덥(八), 으덥물, 으망지다, 으삭다, 으으하다, 읊다, 읊가슴, 읊갈리 등.

둘째, 고어의 어형을 다수 유지하고 있다.

드르(野), 오름(山), 굴메(影), 올레(門), 두테비(蟻), 굴레(勒), 굴메(鞞), 가달
(가랑이) 등.

셋째, 古語에서 보이는 음운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르르’표기, 유성음 사이에서의 /g/, /b/음의 약화·탈락, 구개음화 등)

빨리(根), 일름(名) / 질루다(糞), 갈르다(分), 불르다(踏), 풀르다(短), 널르다(廣) 등.
대윗(竹田), 불미왕불미간(대장간), 마리왕마리방(마루방) 등.

넷째, 특이한 형태구성을 보여준다.

접미사 /-a(ə)ŋ/의 첨가 : 아방(父), 어멍(母), 바당(海), 바농(鍼), 하르방(祖父), 할망(祖母) 등.

접미사 /-ŋi/의 첨가 : 생이(鳥), 제비생이(燕), 중이(鼠), 킹이(蟹) 등.

접미사 /-ɛ(e)ŋi/의 첨가 : 골쟁이(鋤), 지렁이(蜈蚣), 빙에기(鷄雛) 등.

다섯째, 특이한 조사와 어미활용을 보여준다.

그라, 안테레 / -양, -영, -암서고, -암서라, 암시민, -염주, -서마쌌, -쿠다, -버서 등.

이외에도 여러 특징이 있다.

한 지역의 문화, 세대, 사회계층에 따라 방언어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지역마다 특이한 어휘가 쓰임은 물론, 음운현상, 문법현상, 통사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물론 그러한 차이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각기 지역방언도 하나의 개별언어로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방언의 조사, 수집,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에 틀림없다.

국어국문학과에서 제주방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간된 <국문학보> 1집(1956)에 '방언연구법'(현평효), '제주방언에서의 ㅇ 고'(현용준), <한글>(119~121호)에 '제주 방언의 어미활용(1~3)'(김영돈), 제주 문화(1호)에 '제주도방언의 음운개관'(김영돈) 등의 논문이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참고가 되는 글들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제주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국어국문학과와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서 집단적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방언 조사 방법

방언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련과정에 있는 학생들(특히 제주대 국어국문학과와

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 언어권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어휘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어휘의 차이가 주로 지리적인 차이나 역사적인 차이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어의 방언권은 대개 지역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방언학도 국어학과 대등한 학문으로 그 위상이 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문법적인 분야와 통사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표준어와는 다른 특징들이 확인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방언조사도 좀 더 차원이 높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小倉進平(1944)과 김형규(1974),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의 어휘분류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까지의 우리가 학술조사과정에서 행한 것을 살펴보자.

小倉進平의 <조선방언의 연구>(1944)

天文, 時候, 地理·河海, 方位, 人倫, 身體, 家屋, 服飾, 飲食, 農耕, 花果, 菜蔬, 金石, 器具, 船車, 飛禽, 走獸, 水族, 昆蟲·爬蟲, 草木, 形容詞, 動詞

김형규의 <한국방언사전>(1974)

天文, 地理·河川, 時候, 方位, 人倫·人事, 身體, 排泄物·疾病·行動, 家屋, 服飾, 飲食, 農耕, 牧畜, 紡織, 花果, 菜蔬·海草, 穀物, 草木, 金石, 飛禽, 走禽, 昆蟲·爬蟲, 水族, 器具, 舟車·遊具, 數·度量衡·其他, 副詞, 形容詞, 動詞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

農事 : 耕作, 打作, 搗精, 穀物, 菜蔬

飲食 : 副食, 主食, 別食, 그릇, 부엌

家屋 : 家具, 房, 建物, 마당, 유물

衣服 : 洗濯, 服飾

人體 : 머리, 얼굴, 눈, 코·귀, 洗手, 上體, 下體, 皮膚病, 발병, 生理

育兒 : 發達, 才弄, 놀이

人倫 : 家族, 結婚, 親戚

經濟 : 마을, 대장간, 單位, 數

動物 : 물고기 1, 물고기 2, 벌레, 家畜, 산짐승, 날짐승

植物 : 꽃, 나물, 열매, 과실, 野生樹.

自然 : 산, 돌, 하루, 時候, 方向.

狀態 : 길이·두께, 넓이·높이, 수량·무게, 색채·농도·깊이, 감각·정서, 맛, 성품·인상.

動作 : 料理, 受惠, 갈무리, 飼育, 놀이, 移動, 感覺, 教育, 人體

이상은 전통적인 어휘분류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최근에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법에 대한 일부 계승, 일부 수정을 통해서, 어휘를 분류한 사람도 있다. 이익섭(1981), 남영신(1987), 박용수(1989), 임지룡(1991)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학술조사를 통해 보고한 것을 토대로, 방언분야에 대한 큰 항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 동안의 학술조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가를 대충 알 수 있다.

국어국문학과

倉川里 학술조사보고서 - 禁忌談, 通過儀禮, 一日舉動, 日常舉動, 歲時舉動, 衣食住, 動植物

牛島 학술조사보고서 - 海女語彙, 風名, 潮水名, 船名, 魚名, 海岸名, 地名

加波島 학술조사보고서 - 漁業語彙, 潮水 및 干滿語彙, 風名, 飲食物 <떡류>名, 昆蟲名, 其他, 海安地名, 地名

濱坪里 학술조사보고서 - 海女語彙(해녀의 등급, 해녀의 작업, 採取物名, 海女服, 海女の作業器具名), 風名, 潮水名, 船名, 魚名, 海岸名, 地名

中文里 학술조사보고서 - 牧畜語彙, 狩獵語彙, 漁業器具名, 風名, 潮水名, 身體名, 娛樂名, 昆蟲名, 人事語彙

德修里 학술조사보고서 - 풀무에 관한 어휘, 穀物名, 器具名, 飲食物에 관한 어휘, 服飾에 관한 어휘, 家屋에 관한 어휘, 돌·田土에 관한 어휘, 기타

郭支里 학술조사보고서 - 農耕에 관한 어휘, 動物에 관한 어휘, 疾病에 관한 어

휘, 親族名稱 및 人稱名, 鬼神에 관한 어휘, 기타.

杏源里 학술조사보고서 - 물고기명, 지명, 풀이름명

歸德里 학술조사보고서 - 語彙, 植物名, 地名, 風名, 農器具

東福里 학술조사보고서 - 海產物名, 農產物名, 農器具名, 地名, 기타

衣貴里 학술조사보고서 - 가옥구조명,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동·식물명, 지명, 조사 및 어미, 기타

九億里 학술조사보고서 - 農業名, 飲食名, 人體名, 질그릇명, 地名, 감각어, 기타

水山里 학술조사보고서 - 동물명, 식물명, 지명, 음식명, 농기구·가재도구명, 놀이명, 기타.

국어교육과

蘭山里 학술조사보고서 - 農業에 관한 어휘(農具, 밭의 名稱), 畜産에 관한 어휘(소의 분류, 말의 분류, 기타), 사냥에 관한 어휘, 의식에 따른 떡의 종류와 그 도구, 동식물의 명칭, 遊戱, 風名, 家具, 기타어휘

城邑里 학술조사보고서 - 官衙·官屬어휘, 刑具 및 武器名, 家屋의 部分名稱, 身體名 및 動物體의 部分名稱, 馬具名, 農具名, 기타

納邑里 학술조사보고서 - 身體에 관한 어휘, 穀·草에 관한 어휘, 餌에 관한 어휘, 기타

德修里 학술조사보고서 - 풀무에 관한 어휘, 穀物名, 器具名, 飲食物에 관한 어휘, 服飾에 관한 어휘, 家屋에 관한 어휘, 돌, 田土에 관한 어휘, 기타

光令里 학술조사보고서 - 穀類, 菜蔬類, 雜草類, 木類, 飼草類, 藥草類, 嗜好品類, 기타

明月里 학술조사보고서 - 의생활어휘, 식생활어휘, 주생활어휘, 지명

大坪里 학술조사보고서 - 農業(穀類, 食用作物, 農具), 飲食(떡류, 밥류, 범벅류, 기타), 잡초류, 어업, 지명, 기타

溫平里 학술조사보고서 - 명사류(農業, 漁業, 家事, 家屋, 가축·곤충·새), 동사류(기본 동사류 어휘, 낱새에 대한 어휘, 모양에 대한 어휘, 맛에 대한 표현, 촉감에 대한 표현, 색깔에 대한 표현), 기타(김종류, 의복, 인체부위 명칭, 기후), 地名

제주도방언에 대한 학술조사의 성과와 반성

- 下禮里 학술조사보고서 - 용언의 활용형,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어업, 기타, 지명
- 金寧里 학술조사보고서 - 의생활어휘, 식생활어휘, 주생활어휘, 농업, 어업, 지명
- 高山里 학술조사보고서 - 명사류(농업, 어업, 가사, 가옥, 가축·곤충·새), 용언류
(연결어미의 결합, 종결어미의 결합)
- 楸子島 학술조사보고서 - 의생활어휘, 식생활어휘, 주생활어휘, 농업, 어업, 가축
·곤충·새이름, 지명
- 甫木洞 학술조사보고서 -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 善屹里 학술조사보고서 - 農業語彙, 衣生活語彙, 食生活語彙, 住生活語彙, 動物
과 植物, 기타
- 回天里 학술조사보고서 - 종결어미(평서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 漢東里 학술조사보고서 - 의생활어휘, 식생활어휘, 주생활어휘, 농업, 어업, 기타

문화재연구회(제주대 박물관)

- 吾照里 학술조사보고서 - 地名, 說話에 의한 지명, 風名, 潮水名, 飲食名, 衣服名,
遊戯名, 지역적 특수방언
- 龍水里 학술조사보고서 - 漁事語彙, 農事語彙, 地名, 其他

이상과 같이 기존의 학술조사는 명사류, 특히 구상명사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
었다. 이는 방언조사에서 전반적인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상
의 차이에 치중한 나머지 의미상의 차이에 대한 기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휘 중심의 수집들을 한 결과로 하여 문법면에서의 방언차의 부각이라는 것은 거
의 도외시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어휘 중심의 조사에서도 한 지역에서 사용하
는 어휘를 모두 조사하려고 애썼지만 조사자의 한계로, 대상어휘도 한정되어 있
을 뿐 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쓰이고 있는 어휘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만큼 조사해낸 어휘 자료를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참고는 될지연
정 연구자료로 바로 이용하기에는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사의 호응
관계, 어미의 호응관계, 특이한 어미활용 등 문법적인 사항까지도 깊이 있게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형태 등에 관심을
기울여, 조사·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사류와 같은 어휘에 못지 않게 상

태동사와 동작동사에 대한 특이한 어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조사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 조사해내야 할 것이다.

2) 조사항목의 작성과 질문지 작성

대학생 수준의 방언조사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것이 조사항목의 작성과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1)에서 조사어휘를 선정하면,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효과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지상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조사 때마다, 선배들이 했던 방법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경향이 많다.

조사항목은 조사지역의 직업적 특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가령 어촌에 대한 어휘는 바다를 끼고 있고, 실제 바다와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농촌에 대한 어휘는 다시 어떤 농사를 주로 짓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기존의 학술조사 준비과정에서, 조사항목의 선정에 참고했던 것은 주로 이전에 했던 조사항목과 유형, 그리고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학문의 입문과정에 있고, 학술조사를 통한 방언학 또는 언어학의 수련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들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 해동안 학술조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조사유형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확인될 수 있는 모든 동작동사류의 어휘를 선정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태동사류의 어휘를 선정하여 확인해볼 수도 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어휘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한, 다양한 어휘를 선정하고 다양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다.

특히 동물과 식물에 대한 어휘는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에 임하는 대학생들이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그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습과정에서 익혔던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관찰하려는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등한히 했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에 대한 것 등 문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제주도 방언 사전류를 살펴보면,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이 상당

수 있다. 그런데 학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어휘들은 이들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 이외의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학술조사의 과정을 다시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저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등의 격식을 갖추는 질문법이 있다. 이에겐 어떠한 것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가령 식물도감, 동물도감, 아니면 농기구 등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직접 제시하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확인되는 물체들을 직접 가리키며 물어 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물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등 격식의 질문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격식질문법을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이다. 사실 이제까지 거의 모든 조사가 이것을 토대로 했는데, 문제점이 많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는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를 선정했고, 지역적인 표본조사, 장차는 언어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방언차가 심한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 결국 지역에 따라 새로운 질문항목을 선정하고 새로운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른 약식질문법이 있다. 조사항목을 관련이 있는 것끼리 나열하거나 유사한 어휘끼리 나열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방언조사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사실 이 방법은 전문적인 사람들, 곧 방언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수련과정의 대학생에게는 적용하기에 곤란한 방법이다. 어떤 농기구에 대한 어휘를 조사한다고 할 때, 조사원으로 구성된 학생 개개인은 사전에 농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조사를 위한 조사는 될지언정, 언어학의 입문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련과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 현지조사과정에서 질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한 가지로 고정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몇 가지 질문방법을 예시한다.

명명식 질문법

(그림이나 사진을 보이면서) 이걸 뭣이랑 흡니까?
(현장에서 물체를 직접 가리키면서) 저건 뭣고 마썸?
남편의 여동생을 뭣이랑 흡니까?

대담식 질문법

밭에서 매는 검질은 어떤 것이 이시코 마썸?
말(馬)에 여러 종류가 이신디, 어떤 것이 이시카 마썸?
바닥에서 잡는 꿩이를 아는데로 그라줍서?

역질문법

좁대(쟁기)는 무엇에 쓰는 거과?
여기서는 '술박'이렌 안 흡니까?
쇠(牛)는 어디에서 질릅니까?

지환식 질문법

왕대는 어떤 거고, 족대는 어떤 거과?(상태동사를 확인할 때)

이러한 질문법 외에도 설화나 속담 등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명사류 어휘나 동사류 어휘의 뜻을 물어볼 수도 있다. 사실 명사류 따위의 어휘는 어떠한 질문법을 활용하더라도 조사하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는데, 상태동사와 동작동사, 어미류와 같은 어휘를 조사할 때는 어떠한 질문방법을 써야할 지 당황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는 대개 대화 중에, 혹은 설화를 구연한다거나, 옛날 얘기 등을 구연할 때, 그때 그때 포착해서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방언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화 등을 그대로 채록하는 것이다.

3) 조사자 선정

직접 현지에 나가서 방언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수집하는 사람을 調查者(또는 調査員)라 한다. 조사자는 방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관심을 갖는 비전문가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방언조사와 수집의 과정을 수련하거나 연습하는 대학생일 수도 있다. 전문가는 당연히 언어학이나 음성학, 방언학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평소 방언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방언의 특징 등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대개 대학교수인 경우가 많다. 비전문가는 언어학이나 방언학 등의 지식은 깊지 않으나, 방언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어휘를 조사·관찰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대학생의 대부분은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학생들로, 언어학이나 방언학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는 학생들로서, 방언의 조사와 수집에 대한 수련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언어에 관계가 없는 학과의 학생도 방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의 학술조사의 경우, 조사자는 대학생이 중심이 된다. 조사자가 효과적인 방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제보자가 행하는 말소리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성학이나 음운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아마 대학교 2, 3학년이면 대개 이 과정을 이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조사가 미세한 음성들을 확인·관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말소리의 구별을 음성단위까지 확산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성학은 많은 수련과 훈련과정이 필요한 것어서 초보자나 수련과정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것보다 소화해서 조사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행히 우리가 행하는 학술조사에 참가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본도 출신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표기할 수가 있다. 이 점이 다른 지역 학생들이 행하는 학술조사의 참가자와는 다른 것이다.

조사자는 이외에도 기본 어휘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고, 웃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범절, 여러 사람과 무리 없게 사귀는 사교성,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말솜씨, 참을성과 인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것은 방언 조사에 임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고, 누군가 주지시켜야 할 것들이다.

4) 제보자 선정

방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보자가 있어야 한다. 보편적인 제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성이 있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야 하고, 가급적이면 아버지, 할아버지, 제보자의 상대편 등이 그 지역 출생이어야 하고, 외지에 자주 드나든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토박이 화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나이가 많아야 한다. 대개 그 지역 출신이고 외부의 영향이 적은 사람으로서, 40대에서 60대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명이나 문화의 혜택을 덜 받은 시골지역이어야 한다. 시골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가급적 오래된 어형, 또는 변화가 덜 된 어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급적 학교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개신과의 영향이 적은 사람이라야, 그 지역의 말을 온전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특수한 어휘를 오래 간직하기 때문이다. 가령 농기구에 대한 어휘를 조사한다면, 과거부터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지금도 농업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 해너어휘를 조사한다면 직접 해너질을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자보다는 남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청각상태 양호, 치아상태 양호), 영리하지 않은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 등도 제보자가 갖추어야 할 여건이다. 그리고 외지에 자주 드나든 사람과 고학력인 사람, 말주변이 좋고 잘난 척하는 사람 등은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학술조사에 임했을 때, 위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조건은 조사하는 목적에 따라 충족시켜야 한다. 조사하려는 조사항목이 음성에 대한 것이냐, 음운에 대한 것이냐, 문법에 대한 것이냐, 그리고 농업에 대한 것이냐 어업에 대한 것이냐, 조사지역의 중심적인 산업이 무엇이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별 방언차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행하여 보고한 학술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보자의 연령과 성별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별 분포는 정확한 표시가 없어서 생략하였다.

연령별 분포

10대 - 1명 / 20대 - 4명 / 30대 - 11명 / 40대 - 19명 / 50대 - 18명 / 60대 - 21명
70대 - 25명 / 80대 - 11명

성별 분포

남 - 73명 / 여 - 35명

5) 조사지역 선정

학술조사지역은 현재로서는 제주도 내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부락의 수는 557개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¹²⁾ 이들 자연부락은 외부적으로는 한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내부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할 경우 약 300여 마을로 축소될 것이다. 이들 자연부락 중에서 현재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자연부락의 수는 30개 마을이 넘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방언조사를 행해야 할 자연부락은 250여 마을 이상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방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 간행물).

국어국문학과

남군 안덕 倉川里(<국문학보> 4집, 1972) / 남군 성산 牛島(<국문학보> 5집, 1973)
남군 대정 加波島(<국문학보> 6집, 1974) / 남군 중문 中文里(<국문학보> 7집, 1975)
남군 안덕 德修里(<학술조사보고서> 7집, 1982) / 북군 애월 郭支里(<학술조사보고서>

12) <제주도지>제1권:488

8집, 1984)

북군 구좌 杏源里(<국문학보> 8집, 1986) / 북군 애월 歸德里(<국문학보> 9집, 1990)
북군 구좌 東福里(<국문학보> 10집, 1990) / 남군 남원 衣貴里(<국문학보> 11집, 1992)
남군 대정 九億里(<국문학보> 12집, 1994) / 남군 성산 水山里(<국문학보> 12집, 1994)
서귀포시 江汀洞(미간행)

국어교육과

남군 성산 蘭山里(<학술조사보고서> 5집, 1976) / 남군 표선 城邑里(<학술조사보고서>
6집, 1977)
북군 애월 納邑里(<학술조사보고서> 7집, 1982) / 남군 안덕 德修里(<학술조사보고서>
7집, 1982)
북군 애월 光令里(<학술조사보고서> 8집, 1984) / 북군 한림 明月里(<백록어문> 1집,
1986)
남군 안덕 大坪里(<백록어문> 1집, 1986) / 남군 성산 溫平里(<백록어문> 2집, 1987)
남군 남원 下禮里(<백록어문> 5집, 1988) / 북군 구좌 金寧里(<백록어문> 6집, 1989)
북군 한경 高山里(<백록어문> 7집, 1990) / 북군 楸子島(<백록어문> 8집, 1991)
서귀포시 甫木洞(<백록어문> 9집, 1992) / 북군 조천 善屹里(<백록어문> 10집, 1994)
제주시 봉개동 回天里(<백록어문> 10집, 1994) / 북군 구좌 漢東里(<백록어문> 11집,
1995)

4. 조사 자료의 轉寫와 기록

방언에 대한 현지조사를 끝내고, 수집된 자료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집 형태로 묶여져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집된 자료를 문자언어로 바꾸어, 재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리 과정에서 가장 고충을 겪는 것이 轉寫와 음운표기문제이다. 轉寫는 대개 조사 수집된 말소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로마자로 만들어진 국제음성문자(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로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轉寫의 원리는 한 말소리는 한 말소리의 부호로 옮겨 적는 것이며, 이는 말소리의 발음과 알파벳 문자 표기체계와의 차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미세한 음성의 차이까지도 전사하기도 하고, 주요한 음성의 특징만을 전사하기도 한다. 방언의 현지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보고서나 책의 형태로 발간할 때 고민하는 것이 이 말소리의 전사문제인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경우 현평효(1962)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비전문가, 또는 방언 조사 수집에 대한 초보자나 수련과정의 대학생들에 있어서의 轉寫는 손쉬운 문제가 아니다. 거기다가 국제음성문자가 유성음 사이에서의 무성음의 유성음화라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규칙을 불필요하게 반영하였을 뿐이지 한글로 전사했을 때보다 더 정밀한 말소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다. 고작 ‘.’, ‘..’의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현해 줄 뿐이다. 음성전사와 같은 음성학적인 관찰은 최근에 새로운 기기들에 의해서 더욱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고, 보통 사람의 귀로, 혹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방언조사 과정에서 얻은 말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음성부호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사실 정밀한 음성학적인 연구가 아닌 한 음성전사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나 숙련과정의 초보자도 얼마든지 방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발음 현상과도 관련되는, 음운의 정확한 식별능력이다. 음성단위까지 자세히 표기할 수는 없어도, 음운단위까지는 자세하게 표기해주어야 한다. 조사자는 방언의 모음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음운을 식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음운을 식별하여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ㅐ와 ㅑ, ㅓ와 ㅕ, ㅖ와 ㅗ, ㅛ와 ㅜ, ㅝ와 ㅟ 등이다. 음성학자나 언어학자들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ㅐ는 혀가 가장 낮고 자리가 가장 앞이며, 비원순모음이고 ㅑ는 혀가 가장 높은 ㅓ와 가장 낮은 ㅕ의 중간에서 나는 비원순모음이다. ㅓ와 ㅕ는 하나의 영역에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구별되는 음이고, ㅖ와 ㅗ는 이중모음 단계인가 단모음 단계인가에 대한 구분, ㅛ와 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가 단모음으로 발음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학술조사에 임하는 대학생들은 그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수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더구나 그 고장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음성의 수련과정도 거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덧붙여 장음으로 발음하는가 단음으

로 발음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여, 나타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사의 문제는 방언을 조사하는 팀만이 아니라 설화나 민요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경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언의 경우, 대학생과 같은 수련과정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명사류, 그것도 구상명사를 주로 수집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小倉進平(1944)과 김형규(1974)의 조사방법과 비슷한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에 조사된 구상명사의 어휘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익혀서, 현지조사 때 그 지역에 동일한 어휘가 사용되는가, 아니면 다른 특이한 어휘로 대체되는가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좀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말은 설화나 민요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현행 한글맞춤법은 총칙에 '한글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도록 하지만, 한글맞춤법에 규정된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방언조사에서 조사해낸 방언을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련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고 어떤 것은 어간을 밝혀 적어야 하느냐? 현행 한글맞춤법을 방언 조사에도 적용해야 할까? 방언도 국어의 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글맞춤법에 준하여 표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다.

제주도 방언에 대한 학술조사의 경우 대부분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글맞춤법과 같은 표기규칙을 정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제주도방언연구>(현평효, 1962)에서는 범례의 'VII. 철자법' 항에서 방언의 표기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였고, 탐라문화총서(2)로 발간된 『제주설화집성(1)』의 일러두기에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제시하여, 방언 수집의 결과를 옮기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다시 '제주말 표기법(안)'으로 수정되어, 제주방언 표기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말 표기법(안)'은 현평효 선생의 안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방언연구회의 논의를 거친 것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에 기존에 발간된 학술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표기상의 혼란을 몇 가지 살펴보고, 표기와 기록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명사류 어휘는 방언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동사류와 어미류에 대한 것은 설화팀의 조사, 『제주설화집성(1)』 등에서 뽑는다.¹³⁾

13) 예문은 <제주방언연구(자료편)>(박용후, 1960),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현평효, 1962),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현평효, 1985), <제주설화집성(1)>(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국문

① ‘ㄱ’와 ‘개’의 표기

‘개’와 ‘개’의 문제는 방언뿐만 아니라 표준어의 발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언수집과정이나 수집된 것을 정리할 때, ‘개’로 발음되느냐, ‘개’로 발음되느냐를 구별하여 표기에 반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물며 수련과정의 대학생들이 그것을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제주방언의 경우 이러한 예가 많다.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표기한다.

“ ‘개’는 ‘개’와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개’로 적는다.”와 “ ‘개’는 ‘개’ 소리로 변해졌으므로 ‘개’로 적는다.”(제주말 표기법(안)가 그것이다.

개(犬), 개고(浦邊), 내(川), 새벽(晨), 새돌(-月) / 새기다(刻), 개다(晴), 해롭다(害-) 등

내(煙), 배(腹·梨·船), 생각(思), 해(太陽) / 깨닫다(覺), 데하다(對-), 배우다(學), 베다(姓) 등.

데답(對答), 제미, 채소(菜蔬), 매일(每日), 내일(來日), 제물(祭物) 등

조사 보고된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표기의 혼란을 살펴보자.

이저참 매해 일등하는 오찰방 이기는 놈이 있다.(이것 참 매해 일등하는 오찰방 이기는 놈이 있다.) <국문>

아이고 오늘은 백년 대구리가 승시 부려가난 뒷밭디래 대껴부러수다.(아이고 오늘은 백년 대가리가 흥사를 부려가니 뒷밭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백록>

대구리 흥나 봉간 오라신계 치매입영 가그녕 우리 대에 태운 조상이건 치매래 등 끌어오민 우리가 잘 대우를 허쿠덴 굴아봐.(대가리 하나 주워서 왔으니 치마 입어서 가서 우리 대에 태운 조상이면 치마래 굴러 오면 우리가 잘 대우를 하겠다고 말해봐.) <백록>

‘매해’는 ‘매해’로, ‘대구리’는 ‘대구리’로, ‘래’는 ‘래’로, ‘대껴’는 ‘대껴’로, ‘가그녕’은 ‘가그녕’으로, ‘치매’는 ‘치매’로, ‘대우’는 ‘대우’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학보, 백록어문, 학술조사보고서에서 뽑는다. 이를 차례대로 ‘박①, 현①, 현②, 설화①, 국문, 백록’의 약호로 사용한다.

그 할망이 그 말 들어 가지곤 그말 들었던 경헛젠 곱으나네, 동네 사름도 경곤곡
흐난, 간 문지두리 시청 메이랜 흐난 그 사름은 갔어.(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 들었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동네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하니, 가서 문지
도리를 씻어서 떡이라고 하니, 그 사람은 갔어.) <설화 ①>

‘개’와 ‘께’의 혼란은 어미표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매’와 ‘메’, ‘랜’과 ‘켄’, ‘-
젠, -쟁’과 ‘-젠, -쟁’, ‘래’와 ‘레’ 등 부지기수가 나타난다.

② ‘·’와 ‘ㅏ’의 표기문제

위의 ‘개’와 ‘께’의 혼동과 마찬가지로, ‘·’와 ‘ㅏ’의 혼동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대학생의 학술조사보고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응, 그렇게 했다고 어른들이 전설에 끈는 거지.(응, 그렇게 했다고 어른들이 전설에
서 말하는 것이지.) <국문>

널리 혼 받디 정해뉿 가쿠다.(널리 한 발을 정해 두고 가겠습니다.) <국문>

이젠 홀 수 어시 종 살려당 아방어명한티 팔겨분 질, 이제랑 돌앙 살암시나 어멍
아방 또 찾아보젠(이제는 할 수 없이 종 살려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버린 것을,
이제는 데려서 살고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를 또 찾아 보려고) <백록>

이건 나그네 이제 못등만 빌립써 어명헛써 해영 홀 수 어시 저디 앓음생 했져.(이
것은 나서 이제 못등만 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저 곳에 앓으
십시오 했다.)

방언에 ‘말을 하다’(曰)의 뜻으로 ‘굳다’가 쓰인다. 위의 ‘곱는’은 ‘굳는’으로 바꾸
어야 할 것이다. ‘흐나, 하나’의 관형사는 ‘훈, 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흔받디’는
‘훈받디’로 표기되어야 한다. ‘홀 수 어시, 홀 수 어시’는 ‘홀 수 엇이’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젠 물 데양 이젠 그 죽은마통이?라 모욕허랜 해영 모욕시켜네.(이제는 물을 데
워서 이제는 그 작은마통이한테 모욕하라고 해서 모욕시켜서.) <백록>

‘모욕’의 표기는 ‘목욕’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③ 'ㄷ, ㅌ, ㅍ'과 'ㅅ'의 표기, 된소리의 표기

'밭'(田)의 방언은 '밭'으로 나타나고, 조사와의 관계에선 '밭이, 밧을, 밧되, 밧된, 밧들로, 밧으로, 밧되만, 밧더래'로 표기된다. 그런데 중세국어에 견인된 탓인지 '밭'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형식명사로 쓰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흔 밧되, 두밧되, ……'

경헌디 시장허영 흔반디 들어강 보난.(그런데 시장해서 한 밧에 들어가서 보니.)
<국문>

제대로 된 표기도 보인다.

사름들이 이녁 밧되 검질메레 가가민, 그 수월이물이 집터랜(사름들이 자기 밧에 김 매러 가고 있으면, 그 수월이물이 집터라고) <국문>

다음의 '맷기다'는 '매끼다'로 표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원형을 밝히려다 보니, 표준어에 견인되는 표기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이젠 홀수어시 종 살려당 아방어멍한티 맷겨분 길, 이제랑 둘양 살압시냐 어멍 아방 또 좇아보젠(이제는 할 수 없이 종 살려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버린 것을, 이제는 데려서 살고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를 또 찾아 보려고) <백록>

표준어 '돼지'에 해당하는 방언은 '돛, 도새기(작은 돼지)'이며, '돼지우리'에 해당하는 방언은 '돛통, 돛통, 돛통시, 돛통시'가 아니라 '돛통, 돛통시'이다.

다음의 예는 표기에 된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표기이다. 된소리는 발음상 발화되는 것일 뿐, '-ㅂ서'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ㅂ씨'를 '-ㅂ씨'로 표기한다면, '했져'의 '-져'도 '-씨'로 표기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뭇등'도 '무똥' 정도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건 나그네 이제 뭇등만 빌립씨 어멧헛씨 해영 홀 수 어시 저디 앓음생 했져.(이것은 나서 이제 무똥만 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저 곳에 앉으

십시오 했다.) <백록>

그레 이줍써. 밥 안네져.(그리로 았으십시오 밥을 드리겠습니다.) <백록>

④ 어간의 표시

명사어간과 동사어간 표기의 예를 보면서, 정확한 전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보자.

표준어 명사 ‘겹’(重, 疊) 또는 ‘굽’(重, 疊), ‘결’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현평효①은 ‘굽’[kop]만을 표제어로 들고, ‘事理를 분별함’의 뜻을 가지며 ‘노형, 어도’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박용후①은 ‘굽’[geb]과 ‘겹’[geb]을 들고 ‘겹’(重)의 뜻으로, 설화①은 ‘굽’, ‘굽’이 예문에서 보이며, ‘굽’에 대해서 ‘事理를 분별하여 한계를 지어 / 제각기 차지할 몫을 나누어’라고 설명하였다. 위에서 우리는 방언자료를 굳이 국제음성부호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평효①은 제대로 된 음성부호를 사용했으나, 박용후①의 음성부호 [geb]은 [kop]으로 고쳐야 할 것인데, ‘굽’이나 ‘굽’을 [geb]으로 표기한 것은 ‘굽’의 ‘리’은 발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과연 방언사전의 표제어나 방언자료의 표기에 ‘굽’을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설화①의 예문을 똑같이 목적격조사가 붙은 환경이다. 전자는 [kolbil], 후자는 [kobil] 정도로 발화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사를 볼 때 ‘굽’[kop]은 중세국어에 전인된 표기가 아닌가 한다. 한편 표준어 ‘바깥’에 대응되는 표기로 ‘백겅’(설화①:288), 바깳, 베겅’ 등으로 표기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겅’ 같은 표기는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로 청이슬이 솟아지난, 영 딱 떡징궈져 굽을 나네. <설화①:212>

공불 여자가 경 잘해가난, 이제 방은 혼 방에 누언 밥을 자곡, 뗏밥을 먹어도 특하게 서로 굽을 갈랑 영후민, 이불을 더뜨민 굽 갈랑 나 이불 핀 데로랑 오질 말랭, 야, 경후민 그쳐록 혼가 그말 들영 굽 준낭 누워. <설화①:330>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굽갈랐덴 허주게.(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층을 갈랐다고 하지.) <백록>

‘굽’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굽>굽/굽궈’(重, 疊)으로 표기되고, ‘갈피·겹’ 또는 ‘결’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섯 굴본 혼 나뭇 본과 末앗 다섯 굴 곧흔니(五重者如一樹木本末五重) <원각, 상 1-1:78>

界는 7시라 흥며 굴비라 흥논 마리니 <월석:32>

理 다섯릴 리 又道理 又木理 굴 <훈몽초 하:13~14>

결국 ‘굴’은 ‘겹, 갈피’ ‘결’의 뜻에서, ‘(사람의) 굽을 갈르다’라는 뜻으로 분화하여, ‘사리를 분별하여, 몫을 나누어’ 정도의 뜻을 파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사보고서에도 비슷한 예가 나온다. 표준어 ‘닭(鷄)에 대응하는 예는 ‘독’으로 나타나며, ‘닭의알’ 정도에서 ‘리’이 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원형을 밝힌 흔적을 볼 수 있다.

닭괴기가 맛 좋아.(닭고기가 맛이 좋아.) <백륙>

닭 혼 마리 잡앙 숲양 코서 지내고 한 것 복복 먹엉.(닭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고사 지내고 한 것 복복 먹어서.) <백륙>

‘닭’은 ‘독’으로, ‘닭괴기’는 ‘독괴기’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의 동사 ‘이울다’는 ‘사람의 몸이 점점 수척해지거나 꽃·잎 등이 시들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대응되는 제주도 방언으로 현평효①은 ‘유울다[juulda], 유울다[juulda], 이울다[iulda]’가 모두 全域에서 사용된다고 하였고, 박용후①은 ‘유울다[yuulda]’, 설화①은 ‘울다, 여울다’로 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현평효①에 ‘울다’를 첨가해야 하거나 설화①이 잘못 표기했을 수가 있다. ‘여울다’도 제보자의 잘못이거나 조사자의 잘못일 수 있다. 설화①의 ‘울다, 여울다’는 애월읍 어음리에서 채록한 설화에 표기되었다. 표준어 ‘이울다’에 대응하는 이표기가 다섯 가지의 표기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들을 전부 사전의 목록으로 등재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태자가 병이 들어 가지고 혼 삼사년을 뺑을 고찌지 못하여 울어.(태자가 병이 들어서, 한 삼사년을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몸이 수척해져.) <설화①>

여울져, 보기탕(保氣湯)은 막 먹었주게.(몸이 수척해져, 보기탕을 마구 먹었지.) <설화①>

‘이울다’의 고어는 ‘이불다>이울다, 이울다’(枯)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시킬 때, 제주방언에서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이울다’가 그대로 존재하며, 이의 변화형인 ‘유울다, 유울다’ 등이 확인된다. 여기에 ‘울다’까지 확인된다고 하면,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울다’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울흔불히 偏히 이울오 원녀 귀 머구라(右臂偏枯左耳聾) <두해중 11:14>
숯마울 날굽과 이른 나모와 투구 세 사리 네도 쏘 잇더신가(松子維七 與彼枯木 兜
牟三箭 又在于昔) <용가 9:42. 89>
草木이 이울어든 슬픈 모습미 나느니 <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6>

한편 용언의 어간 표기는 통상 제주 방언의 어법에 맞도록 하여 어간을 밝혀 적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조사보고서에선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헌디 안따 놓은 수산 마을이 우알 동네 편벽(偏僻)이 이서났주(그런데 갖다가 놓은 수산 마을이 위 아래 동네가 편벽이 있었지.) <국문>
남편광 싸우다가 각시가 남편을 안살 지붕으로 혹 데껴 부렸거든.(남편과 싸우다가 각시가 남편을 가져서 지붕으로 혹 던져 버렸거든.) <국문>

동사 ‘갖다’(持)의 방언은 ‘갖다, 궂다, 앓다, 옷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예문의 ‘아따’는 ‘앓다’로, ‘아상’은 ‘앓앙’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준어의 ‘앉다’(坐)에 해당하는 방언은 ‘안지다, 안즈다, 아지다, 앓다’ 등이 나타나는데, 활용어미가 붙을 때 다음과 같이 혼란된 표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나그네 이제 못등만 빌립써 어떻혀써 해영 홀 수 어서 저디 앓음쌔 했져.(이것은 나서 이제 못등만 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저 곳에 앉으십시오 했다.) <백록>
그레 아줍께. 밤 안네져.(그리로 앉으십시오 밤을 드리겠습니다.) <백록>

아래와 같은 부사형이나 명사형은 보통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곧 ‘노프다→노피, 지프다→지피, ㄱ뜨다→ㄱ쩌, ㄱ트다→ㄱ치’, ‘술부치, 쨌부치, 일가부치, 피부치’ 등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굴이’도 ‘ㄱ치’로 표기해야 한다.

죽은마통이 늙는 방에 강 굴의 누웠주.(작은마통이 늙는 방에 가서 같이 누웠지.) <백록>

⑤ 조사와 어미의 표시

선어말어미 ‘-았/었.’에 해당하는 방언의 어형은 ‘-았/엇.’과 ‘-아시/어시.’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학생들이 조사 보고한 것에 의하면, 표준어의 그것과 같이 ‘-았/었.’으로 대부분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학술조사보고서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비 오커냐 안 오커냐 하늘을 써러났젠 험디다.(비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늘을 쓸어 냈다고 합디다.) <백록>

경헌디 아따 놓은 수산 마을이 우알 동네 편벽(偏僻)이 이서났쥬.(그런데 갔다가 놓은 수산 마을이 위 아래 동네가 편벽이 있었지.) <국문>

연결어미 ‘-다고, -려고’에 해당하는 방언의 어형은 ‘-젠, -쟁’으로 표기되는데, 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젠, -쟁’의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어미 ‘-젠, -쟁’은 평서법어미 ‘-저’의 변이형인 ‘-제’에 어미 ‘-ㄴ, -ㅇ’이 연결된 어미이다. 그러니 ‘-젠, -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옛날 실문대 할망이 이서났젠.(옛날 실문대 할머니가 있었다고) <백록>

조생원이엔 허는 하르방이 있젠.(조생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백록>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표기도 보인다.

경헌디 이눔이 역적뵈직허연 지아방이 지저불젠 허난.(그런데 이눔이 역적이 될 것 같아서 자기 아버지가 지저버리려고 하니.) <백록>

조천 영 강 보민 조천앵에 뵈 이시매 이저 두뎡돌 경했젠 현다.(조천을 이렇게 가 보면 조천에 뵈 있으며 이저 두뎡돌 그렇게 했다고 한다.) <백록>

위 예문의 어미 ‘-매’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메’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기의 문제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개’와 ‘기’ 구분의 혼란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활용어미의 표기에도 혼란스런 표기가 있다. 활용어미가 어미와 어미, 또는 어미와 조사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인 경우, 원형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난에'와 '-나네', '-ㅇ근에'와 '-ㅇ그네', '-ㅇ근앵에'와 '-ㅇ그녕에', '-ㅇ은에'와 '-ㅇ으네'를 들 수 있다.

방언의 연결어미 '-나네'는 장차 할 말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난'에 '-에'가 결합한 어미이다. 현평효②는 원형을 밝혀서 '-난에'로 표기하고 있고, 박용후①와 설화①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난에, -으난에 / -아시난에, -어시난에 / -암시난에, -엄시난에 <현②>
 -(으)나네 / 라시나네, 아시나네, 어시나네 / 암시나네, 엄시나네 <박①>

그 할망이 그 말 들어 가지곤 그말 들었단 경헛겐 골으나네, 동네 사름도 경근곡 허난, 간 묻지두리 시청 멩이랜 허난 그 사름은 갔어.(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 들었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동네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하니, 가서 묻지 도리를 씻어서 먹이라고 하니, 그 사람은 갔어.) <설화 ①>

방언의 어미 '-근에, -ㅇ근에'는 장차 할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역시 현평효①은 원형을 밝혀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표기의 혼란을 보이고 한다.

-근에, -ㅇ근에 / -다근에 <현①>
 아(어)그네 / 앙(영)으네 / 다근네, 당으네 <박①>

헌번은 갑작스레 그때는 웃도 잇날 갈중이 그자 막 너병으네 감웃흔 옷 해그네, 사는데 이런 집의서 아주 험하게 살고 했는데. (헌번은 갑작스럽게, 그때는 웃도 옛날 갈중이, 그저 마구 누벼서 감물을 들인 옷을 해서, 사는 것이 이런 집에서 아주 험하게 살고 했는데.) <설화 ①>

부모가 돌아가면 상제(喪制)가 뉘며는 큰 방립(方笠) 써그녕에 상 지크영 어디 나댕기도 못허곡.(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제가 되면, 큰 방립을 써서, 서서 지키어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설화①>

나도 성님이영 혼디 뜨라강 굴목이라도 진엄근에 얻어먹쿠면(나도 형님이랑 함께 따라가서 굴목이라도 진어서 얻어 먹겠다고.) <설화①>

스만이 잡으래 차사가 오라시난, 메 깨끗허게 지엄그녕 세개 허고 신 세계 삼아놓고(사만이 잡으러 차사가 왔으니까, 밥을 깨끗하게 지어서 세 개 하고 신 세계 삼아놓고.) <백록>

대구리 허나 봉간 오라신게 치매임영 가그녕 우리 대에 태운 조상이건 치매래 동글어오민 우리가 잘 대우를 허쿠면 골아봐.(대가리 하나 주워서 왔으니 치마 입어서 가서 우리 대에 태운 조상이면 치마래 굴러 오면 우리가 잘 대우를 하겠다 고 말해봐.) <백록>

이집 지네 집트레 다 끌어들엿그네 지네일부터 허랜(이집 자기네 집으로 다 끌어 들어서 자기네 일부터 하라고)<국문>

이들 어미와 조사에 대한 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모두 적는다면, 어미의 이형태는 많은 수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체언이나 용언 같이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문제는 표준어의 맞춤법 규정과 같이 방언의 맞춤법도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 기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 전문가의 방언조사가 아닌 한 음성기호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어휘집을 만든다든가 방언 사전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된 보고서의 대부분은 이러한 혼란상을 그대로 기록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제주도방언에 대한 학술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기까지의 기록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교류, 교통의 발달, 표준어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 방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언의 학술조사는 매우 뜻 깊은 행사이다. 이 학술조사는 과거의 틀에 얽매인 조사와 수집에서 탈피하여,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술조사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조사한 뒤에도 자료로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쯤 조사한 것을 기록에 옮기기 전에, 기록물에 대한 표기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느 정도 통일된 표기체제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 수집,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국어국문학회(1990),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김완진(1986), “비전문인의 방언연구”, <국어생활>5, 국어연구소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고찰편), 과학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도서출판 계명문화사.
어문연구실(1979~1985), <방언> 1~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병근(1971), “국어방언연구의 흐름과 반성”, <방언>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익섭(1979), “방언자료의 수집 방법”, <방언>2집.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이익섭(1986), <국어학개론>, 학연사.
이익섭(1986), “방언조사의 필요성과 그 방법”, <국어생활>5, 국어연구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방언조사질문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방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1), <방언>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2(강원도편).
한영균(1984), “강원·경북울릉·제주방언의 현지조사 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61,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연구편), 이우출판사.
현평효(1992), “제주방언의 보존 전승 방안”, <제주도>92호, 제주도
홍종림(1992), <제주방언의 樣態와 相>, 한신문화사.